

# 엔데믹 특수 속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업체 횡포

### 추가 비용에 현금 결제 요구...계약서에 부당한 의무 조항 넣기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분야서 심각...광주 피해 호소 잇따라

지난 4월 결혼한 김소영(여·29)씨는 광주시 남구의 유명웨딩업체를 통해 결혼 준비를 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웨딩드레스를 골랐는데 예식을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웨딩업체 직원으로부터 드레스가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웨딩플래너가 김씨의 동의 없이 드레스를 변경했고, 설상가상 드레스 변경 명목으로 100여만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번 아니라 웨딩업체는 꽃 추가 비용, 사진 원본 수령 비용 등을 요구하며 700여만원의 추가비용까지 요구했다.

김씨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계약 취소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혼 컨설팅을 받을 때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해서 업체 내 현금인출기를 쓸 것을 요구하는 등 신혼부부를 제멋대로 끌고 다녔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을 미뤄왔던 광주·전남 신혼부부들이 결혼 준비에 나서면서 웨딩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멋대로 수정하거나 계약 조항에 부당한 의무 조항을 넣는 등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92건이었으나 지난해 152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올해 또한 지난 6월까지 127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실제 웨딩 업체들은 정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각종 추가비용을 예비 부부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꽃 추가, 드레스 변경, 메이크업 수정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 웨딩플래너의 설명만으로는 어디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로 불리는 웨딩 관련 업체들이 각 서비스 항목마다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정가제 도입을 하지 않아 예비 부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결혼한 양가현(여·32)씨는 광주시 북구에 있는 웨딩컨설팅 업체를 이용했다가 '추

가 비용 폭탄'을 맞았다.

양씨는 결혼 준비를 잘못 했다간 웨딩업체로부터 바가지요금을 쓰게 마련이라는 소문을 듣고 결혼 준비 과정을 대해 줄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웨딩플래너가 결혼식에 앞서 계약서를 써 줄 때에는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막상 결혼식이 끝나고 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스튜디오 촬영 원본사진을 구입하려면 44만원을 내야 한다", "드레스가 신상이니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사진 1회 수정할 때마다 4만원이 추가된다" 등 업체로부터 추가 비용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신혼부부의 '광주시 웨딩업체 계약 불이행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19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글쓴이는 메인무대와 신부대기실에 생화와 조화

를 추가하고, 양측 혼주가 스냅사진을 남기기로 협의해 추가금액을 지불했는데도 결혼식 당일 그 대부분의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총 500만원 가량의 추가금을 냈지만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공개했다.

또 영상, 사진 등 증거를 모아 업체측에 했지만 업체는 2주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플래너가 어떤 계약을 추진하는지, 웨딩업체와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곧바로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감사원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접수 조작"

### "인사담당자가 평가위원에 수정 요구"...광주교육청 "조작 개입 없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 전 감사관을 채용하기 위해 접수 조작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접수 조작에 관련한 인사 담당 1명에 대해 정식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9일 광주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 A씨는 작년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접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적으로 접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은 대학 교수 등 평가위원 5명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해 상위 2명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인사위가 최종 1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해 진행하게 돼 있었다.

작년 8월 진행된 면접에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기동창인 유 전 감사관을 포함해 5명이 응시했다. 이 때 A씨는 평가위원에게 넘겨받은 면접접수에서 유 전 감사관의 합격점수가 221.5점, 3위로 나타나자 평가위원들에게 접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원들에게 "1위는 1962년생 후보, 2위는 1971년생 후보로 나왔는데 광주시교육청 본청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감사관이 국장급

이며,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면서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런 우려를 들은 평가위원 2명이 유 전 감사관의 점수를 높게 수정했고, 이에 따라 유 전 감사관이 232.5점의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9월 정식 채용된 후 교육단체와 노조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유 전 감사관은 올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달리 인사 담당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조작에 개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이 교육감 취임 후 '인적 쇄신'과 '새로운 체제 구축'을 명목으로 직원들을 무리하게 인사 이동시킨 사실도 드러나 '주의' 요구를 받았다.

시교육청 인사 기준에 따르면 정지 정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나게 돼 있는데, 이 교육감은 두 시기의 중간인 작년 7월에 취임했다. 이 교육감은 정지정보 중간에 원하는 인원을 전보하기가 여의치 않아 작년 7월 과장 2명은 다른 직위와 잠시 자리를 바꿔 근무하도록 '장기 출장'을 명령하고 장학관 2명은 다른 과 장학관과 '상호 파견'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9일 낮 12시 40분께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스위스 잼버리 대원들이 탄 관광버스와 마주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위스 대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남소방 제공>

## 어설픈 잼버리 행정 탓에 하마터면...

### 숙소 못 구해 순천시 1박 후 상경하던 스위스 대원 버스 사고 3명 부상

어설픈 행정 탓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스위스 참가단이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9일 전남도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순천시 서면 운평리 도로에서 스위스 잼버리 대원들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와 순천 시내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위스 대원 3명이 가벼운 타박상 등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스위스 대원들이 탄 관광버스 운전자와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도 다쳐 병원에

서 치료 중이다.

사고 관광버스에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해 순천에 온 스위스 대원 36명과 인솔자·버스 운전사 등 3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스위스 잼버리 대원과 대회 관계자 중 일부로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순천시 행동 순천청 소년수련관에 도착했다.

예초 세계 각국의 잼버리 참가대원들이 광주·전남의 지자체에서는 숙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지만 스위스 대원들은 서울과 충북 등지에서 숙소를 확보하지 못해 한밤 중에 갑자기 순천으로 이동했다.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는 전날 밤 9시께 수련관 측에 전화를 걸어 "16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있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련관 측은 9일로 예약된 방문객들의 예약을 조정해 수련관 한 층을 비워 잼버리 측에 제공했다. 이 바람에 스위스 잼버리 대원 166명이 자정이 가까운 시각 관광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숙소로 도착했다.

이들은 하루를 묵고 9일 오전 10시 30분께 상경하다 사고를 당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어설픈 행정 탓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것이다.

경찰이 사고 버스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상승 절도 쌍둥이 나란히 실형

40대 쌍둥이 형제가 같이 절도를 저질러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B(4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

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형제는 지난 3월 31일 밤 9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구리배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